

8 과학수업 보조교사에서 발생한 급성전골수성백혈병

성별	여성	나이	34세	직종	중등학교 실험보조교사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는 2011년부터 3년 1개월간 중학교 과학실험 보조교사로 근무해오던 중, 33세 되던 해에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시약장에 보관되어 있던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중학교(21학급, 360명의 학생) 과학실험보조교사로서 화학실험 재료에 필요한 모든 약품 도구준비, 실험보조용품세팅, 사용시약처리, 죽은 동물 사체처리,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물보존함에 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관병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고, 목재가구 등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작업공간에서 0.0084~0.0243 ppm정도로 측정되었다.(고용노동부 사무실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TWA 0.1 ppm)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요인(유기용제)

5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과거직업력(학교서무로 8년근무), 가족력에서 특이사항 없었으며 C형간염

으로 인해 2개월간 약물복용력이 있었다. 흡연과 음주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중학교에서 과학실험실 약품관리 및 실습준비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벤젠이나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